

문화예술교육 꼼꼼히 들여다보기

현대사회와 문화예술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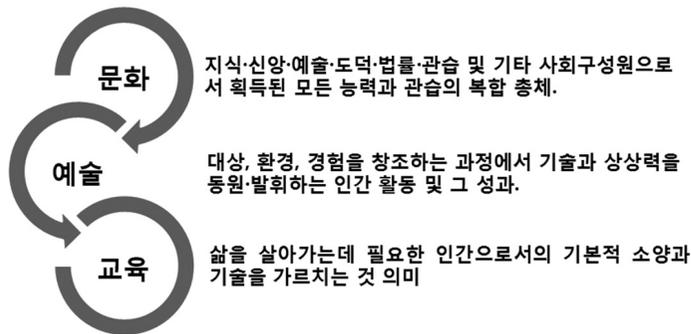
최혜자 성공회대학교 대우교수/문화디자인자리 대표

문화, 예술, 교육

2005년으로 기억됩니다. 한 논문을 읽다가 시선이 멈추었던 곳에 생각이 멈추었던 기억입니다. 논문은 꽤 유명한 교수의 논문이었습니다. 거의 첫 줄에 쓰여 있던 내용이 ‘교육은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명제 하에 문화예술교육에서 가르칠 내용과 배울 내용이 명확하게 정리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이어졌던 기억이 납니다. 이 기억은 오랫동안 저에게 “잘못된 명제”라는 증거를 찾고 싶어 하는 욕구를 지속적으로 불러일으킨 내적 사건이었습니다.

문화예술교육을 어떻게 접근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무엇인가를 가르치려는 것 즉, 콘텐츠의 문제로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르칠 것을 체계화하는 문제 즉, 교육과정의 문제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문화예술교육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따지고 묻기도 하였습니다.

익히 알다시피, 문화예술교육은 문화 - 예술 - 교육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문화, 예술 그리고 교육은 각각의 개념을 가진 용어로 근대에 와서 완성된 개념이며, 현대 사회로 진입하면서 보다 다양하게 확장된 개념이기도 합니다. 즉, 초기 사용된 개념이 확장되어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는데, 이러한 개념이 합쳐진 것은 단순한 물리적 통합이 아니라 다양하게 해석되는 또 다른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림> 문화 - 예술 - 교육의 기본 개념

예술교육의 보편화

근대 교육의 성립 이후 학교교육과정에서 예술교육은 일종의 교양교육이자 기초 소양교육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교육의 내용이 교과화되는 근대교육에서 예술교육은 정형화된 기능을 전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바로 근대예술(장르예술)과 근대교육(제도교육)의 만남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의식과 사는 방식의 변화 즉, 문화의 변화(이를 새로운 패러다임이라 부름) 이후 근대예술과 근대교육의 만남에는 이완이 발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정형화된 예술과 교육이라는 합의 방식이 자유로운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사는 문화에 맞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예술 자체도 기존의 장르예술에서 점점 변화하여 마침내 장르예술은 더 이상 예술적 창작의 기준이 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현대 예술은 장르예술로 설명되지 않은 수많은 창작적 발상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흔히 아서 단토라는 미학자의 저서 “예술의 종말 그 이후”가 이러한 상황을 이야기할 때 가장 적절하게 인용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육제도도 더 이상 정형화된 틀로 운용되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근대 교육제도는 1794년 독일²⁾에서 처음으로 그 원형이 제안된 이후 1960년대까지 보편교육이라는 가치를 실현해 간간 제도입니다. 누구나 교육받을 권리를 구현하는 과정은 마침내 여성, 흑인(미국)의 권리를 인정하는 데까지 매우 많은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제도적 교육 시스템이 처음으로 공격을 당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차별을 조장하고 낡았다는 이유로 공격을 당한 것은 1960년대(유럽의 68혁명)입니다.



<그림> 1968년 파리의 모습

출처 : <http://www.onthisdeity.com/13th-may-1968-%e2%80%93-paris-revolts/>

예술교육의 변신 혹은 예술교육과 다른 무엇

근대적 교육방식의 문제, 상상력을 제한하는 것에 저항하는 68혁명에 참여한 학생들의 구호는 차별과 불평등의 문제로 번졌습니다. 이는 그러한 사회적 배경으로 인한 문제인 동시에 그러한 사회를 바꾸는 동력이 되어 1960년대 이후 문화의 변동은 급격하게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각 나라에서는 기존의 정형화된 예술교육과 구별하여 새로운 명칭의 문화예술교육을 제도화하는 등 변화를 겪습니다. 특히, 2000년대를 앞두고 세계의 여러 나라는 새로운 시대의 인간상을 구현하고자 창의적인 인력 양성을 국가적 방침으로 내세우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예술교육도 이런 변화의 한 종류이며, 제도적으로 그러한 변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정책은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 이에 대한 방향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일상의 모든 문화적, 예술적 교육이 정책 그 자체는 아닙니다. 매우 일상적이기에 인식하기 쉽지 않지만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문화예술교육은 토대의 삶과 미적 가치를 반영하고, 이를 통해 가치를 지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도서관들은 일상적 공간으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 틀과 상관없이 일상의 방법과 지향을 담은 활동이 이루어져왔습니다. 때때로 정책적 틀 속에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2) 1794년 독일 연방을 이룬 프로이센에서는 일반지방법을 공포하여 학교가 교회에서 벗어나 국가 감독 하에 운영되도록 하는 법을 공포하여 실행함.

하여 공모하는 등 현장 활동에도 참여해왔습니다. 물론 학교나 학원에서 배우는 예능교육과 다른 방식의 문화예술교육을 기획하고 운영하고자 노력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노력이 어느 지점에 있는 노력이며, 무엇으로부터 탈주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표> 문화예술교육의 다양한 범례

국가	용어
한국	문화예술교육 (Arts and culture education)
프랑스	예술교육(Arts Education)/ 문화예술교육(Education artistique et culturelle)/ 문화활동(Activité culturelle)/ 문화활성화(Animation culturelle)
영국	예술교육(Arts Education)/ 창의교육(Creative Education)/ 문화교육(Cultural learning)/ 커뮤니티 아트(Community Arts)
미국	예술교육(Arts Education)/ 커뮤니티 아트(Community Arts)/ 찾아가는 프로그램(Outreach program)
독일	문화교육(Kulturelle Bildung)
호주	예술교육(Arts Education)
일본	사회교육/ 예술교육

문화적 맥락을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교육의 변화

우리가 우리 문화적 토대 위에서 자연스럽게 혹은 의식하지 않고 만들어가는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적 맥락에서 입을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예술교육이 제기되고 정책으로 얹히는 것은 세계 여러 나라가 처한 맥락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한두 나라가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그러한 정책이 수립되는 것은 국가적 맥락이 아니라 시대적 맥락 즉, 패러다임의 변화로 읽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패러다임은 독일의 과학자 토마스 쿤의 저서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처음 언급된 것으로 일종의 패턴을 의미합니다. 이는 한 시대를 규정하고 사회전반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 이론, 방법, 의식 등의 체계를 말하며, 흔히 언급되는 패러다임의 전환은 사회의 총체적 변화를 일컫고 있습니다.

문화 패러다임의 전환은 기존의 지식이나 감정, 방법, 가치, 영향 등 모든 삶의 자원과 방식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문화 패러다임의 전환은 대개 과학기술과 산업구조의 변화와 함께 오는 총체적 변화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의 시대를 패러다임의 전환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는 이미 와 있기도 하고, 아직 멀게만 느껴지는 차이를 가지고 어느덧 총체적 변화를 만들어 나갈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미 인간의 역사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원시사회에서 고대사회 그리고 동

서양의 양상은 다르지만 중세에 해당하는 시기가 있었으며, 근대에 이르렀습니다. 흔히 현재를 후기 근대쯤으로 짐작하고 있지만, 먼 훗날 역사가들은 어쩌면 이미 다른 방식의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진단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기반 위에서는 전혀 다른 문화가 만들어지며, 문화적 변화가 지속적인 변화를 이끌기도 합니다. 그러한 문화적 특성은 전혀 다른 예술적 성취를 만들기도 하고, 특정한 상상과 창작의 방법을 규정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그러한 규정에 따라 예술교육의 방법이 등장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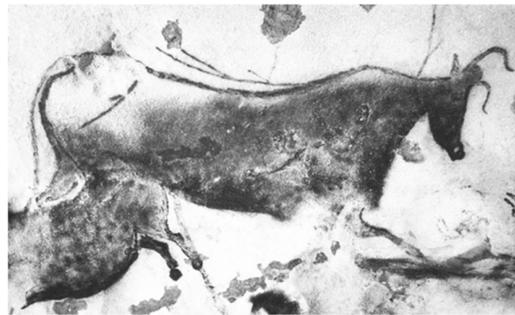
촘촘히 읽는 맥락 속의 문화예술교육

원시시대 예술은 그 시대를 사는 평범한 일상인의 삶의 표현이었습니다. 특별한 예술교육이 있었던 것도 아니며, 양식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저 본대로 아는 대로 표현하게 됩니다. 실제 원시시대의 여러 벽화를 보면, 벽화의 내용과 관련 있는 일을 하지 않으면 묘사되기 어려운 표현을 발견하게 됩니다. 실제 매우 정밀한 묘사들이 등장하는데 이는 바로 그 일한 사람들이 기록을 남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바로 일상의 예술가로서 동물의 그림을 그린 사람은 바로 사냥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술교육은 관찰과 경험 또는 어깨너머 공부와 같은 방식이었을 것입니다.

고대시대의 예술은 그리스·로마의 경우를 보면, 그들의 세계관과 미적 감각이 드러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로마는 자연과학에 기초한 세계입니다. 그들의 세계관의 기본은 숫자였습니다. 숫자는 모든 계량과 측량 그리고 균형을 이루는 기준이 됩니다. 고대 그리스·로마 세계를 지탱하는 신전은 그러한 세계관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이때 예술은 신전에 바쳐진 귀한 정성이었으며, 신과 결합된 권력이 스스로를 드러내는 표현이었습니다. 당연히 이를 위한 이름 없는 예술가가 있었으며, 이러한 것을 구현하는 것은 일종의 원리와 비법으로 전수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술이 일상과 거리를 두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림>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예술의 위치는 어디인가?
출처 : http://m.ecomedia.co.kr/news/newsview.php?ncode=1065575486327702#_enliple



<그림> BC 15000~13000 경으로 추정되는 프랑스의 라스코 동굴 벽화
출처 : <http://thedordogn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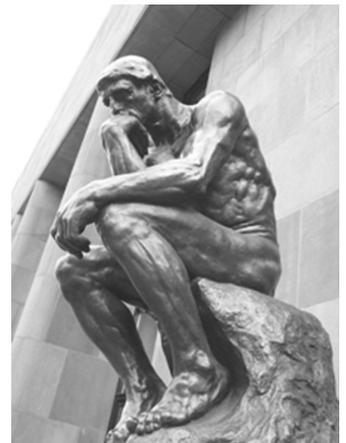
<그림> 비올과 조화라는 미적가치를 가진 고대 그리스의 파르테논신전.
출처 : <http://www.nancyhunting.net>

중세시대는 지구촌마다 제각각의 모습으로 진전되었습니다. 서양의 중세는 신의 세계였습니다. 현재는 신의 가르침을 받드는 과정이며, 내세는 신의 세계로 들어가는 가치의 세계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정제된 결정체는 신에게 바쳐지는 것이며, 중세 예술은 신을 위한 예술이었습니다. 그러한 숭고한 것을 접하는 사람 역시 숭고함을 담아야 하기에 중세의 예술가는 성직자였습니다. 물론 일상의 예술은 가치를 가진 예술로서 인식되어지지 않은 채 중세는 현재에 집착하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습니다.



<그림> 신의 집이자 공동체의 중심인 교회는 천상을 표현하는 가치관의 결정체였음.
출처 : <https://sites.google.com>

근대시대는 이성의 시대입니다. 근대는 자연으로부터 자유로울 정도의 기술이, 신으로부터 자유로울 정도의 과학이 발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가치는 인간이 가진 가치에 전착하였고, 그것이 바로 근대 이성입니다. 유럽의 한복판에서 발명된 근대 이성은 지금도 전 세계적인 가치 기준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백인, 남성, 기독교적 세계관, 유럽이라는 기준을 담은 하나의 사유 체계일 뿐 전일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근대적 세계관은 이러한 가치를 찬양하는 표현을 통해 예술의 기준을 정하였고, 예술가를 양산하는 아카데미가 만들어졌으며, 근대적 가치로 표현하는 것을 일반화하였습니다.



<그림> 유럽의 근대 이성은 강력한 자본주의의 힘을 얻고 세계로 확산되었음.
출처 :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b11s2848a>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장르예술은 근대의 산물입니다. 매우 작은 영토로 쪼개져 있던 유럽 땅을 하나의 근대국가체제로 통일하기 위해서는 그럴 명분과 이미지가 요구되었고 이는 군대와 학교의 힘을 빌려 강력하게 확장됩니다. 또한, 이익을 찾아 세계로 확장하는 데 있어 근대 이성은 야만과 분리되는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확장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도 원시사회 이후 일상과 분리된 예술은 “교양”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왔고, 학교에서의 예술교육으로 찾아옵니다.

예술교육의 새로운 환경

새롭게 만난 예술과 예술교육은 실제의 세계와 분리된 정형화되고 장르적으로 정제된 예술로서 일상성이 상실된 새로운 모습입니다. (일부러 비루한 일상을 제거하기도 함) 물론 예술교육에서 우리의 예술이 활용되기도 하지만, 대개 서구 예술의 정형화된 패턴대로 재구성된 형식이 대부분입니다.

이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술이 가진 보편성으로 인해 어떠한 예술이라도 그 미적가치와 그것이 도달하고자 하는 것은 다르지 않다는 보편론입니다. 또한, 1930년대 이후 서구의 장르예술은 급격하게 쇠락하고 탈장르적 표현이나 복합 장르적 표현이 활성화되어 예술의 사회적 역할과 위치는 이전과 전혀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술교육은 보편성과 공동체성을 재구성하여 예술 본연의 활동을 보다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반면,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모든 텍스트는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예술 역시 일종의 코드가 담겨있습니다. 각 예술에 대한 재해석 혹은 스스로의 예술적 감수성을 재발견하는 과정을 통해 예술적인 가치가 다양화되어야 한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한국 문화 속에 다양한 하위문화, 소수자문화 등은 일정한 삶의 표현이며, 이러한 표현이 자유롭게 드러날 수 있도록 예술교육은 개인의 삶과 일상에 대한 발견을 통해 새롭게 재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예술교육은 기존의 예술교육이라기보다는 예술 활동이자 문화 활동으로서 삶과 매우 밀착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변수가 두 가지 발생하였습니다. 하나는 4차 산업혁명으로 호들갑스럽게 이야기 되는 과학과 기술의 발전입니다. 다른 하나는 자기 삶에 대해 주장하고 요구하며 자기 문화적 흔적을 즐기고자 하는 대중의 성장입니다. 이러한 것의 결정판이 트윗정치, 댓글공장 등입니다. 이것은 기존의 정치 시스템은 물론 사람들이 숙의하는 방식을 제공하는 등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일상의 삶. 그 삶의 주인이 되는 것

그렇다면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기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깊은 고민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패러다임의 전환기에 어떠한 것을 가르친다면 과연 그것은 무엇이어서 할까? 정형화된 것, 기존의 우세한 가치, 기존의 방식은 피해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거대한 전환에

대해 예측하는 사람들이 모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인간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러한 연유입니다.

창의적인 인간. 그것이 가르쳐서 되거나, 배워서 되는 것이라면 이슈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정책이 앞장서고, 사회 곳곳에서 이야기하는 창의적인 인간은 쉽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지점에 문화예술교육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교육에 대해 허버트 리드는 “예술을 통한 교육”이라고 했고, 존듀이는 “경험으로서의 예술”이라고 했습니다. 허버트 리드가 말한 예술은 인간됨을 위한 예술이며, 존듀이가 말하는 예술은 일상의 시민의식과 같은 것입니다. 즉, 인류의 역사 속에 새롭게 등장하는 문화예술교육은 좁은 예술이 아니라 광의의 예술 즉, 문화적인 삶입니다.

이런 문화적인 삶은 사유할 수 있는 주체(한나 아렌트)에 기반하며 행동하는 관계(공공영역)에서 성장하는 삶입니다. 문화예술교육이 단지 콘텐츠나 방법에 매달릴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스스로 기획하는 삶”을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시대적 요청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